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문화창조원 볼트, 창제작 스튜디오
2018. 03. 02 – 03.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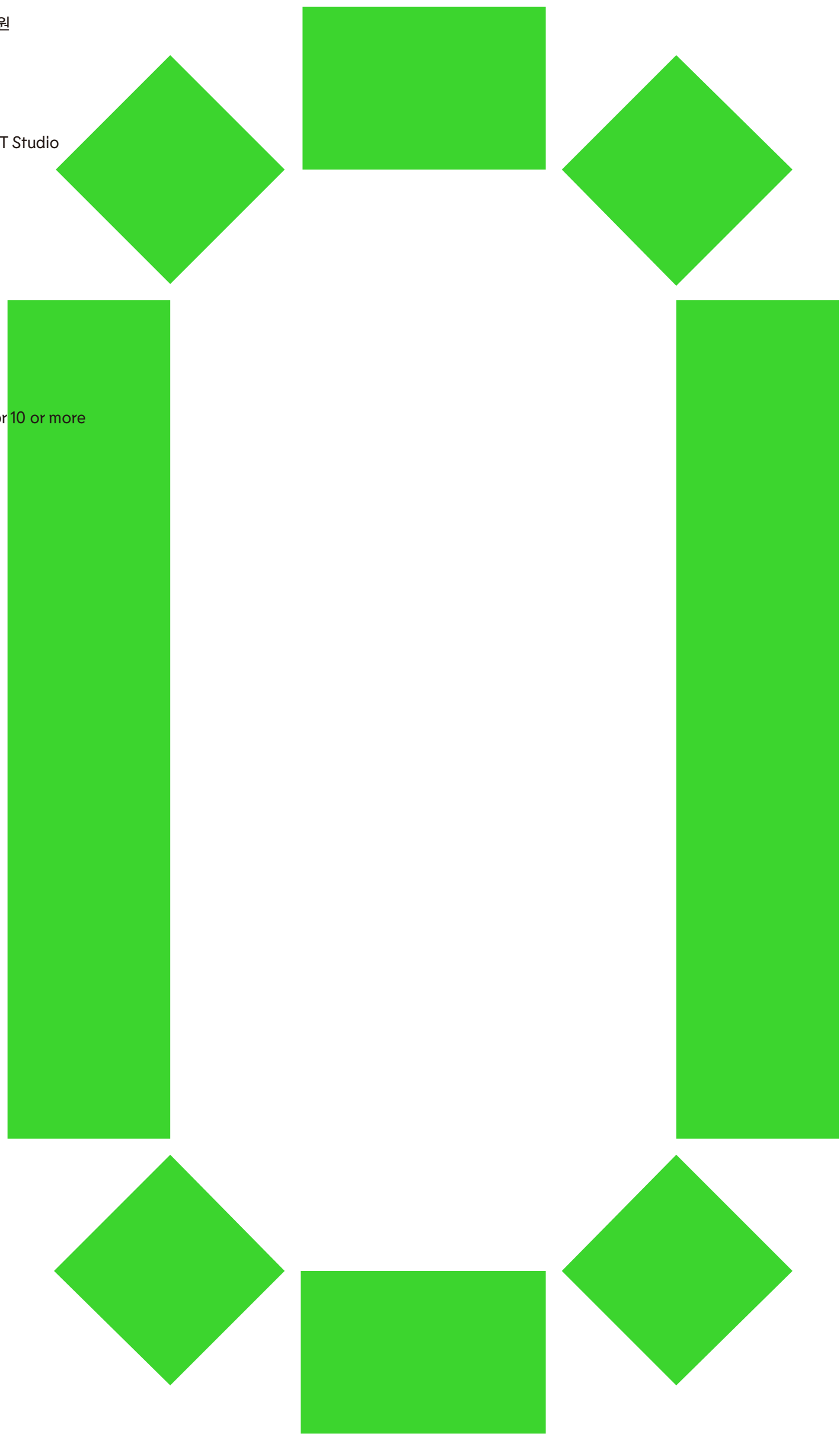
관람시간
화 – 일 : 10시 – 18시
수, 토 : 10시 – 19시
월요일 휴관

관람료
통합 관람권 : 3,000원 – 5,000원
* 학생 50% 할인
* 10인 이상의 단체 20% 할인

Asia Culture Center
ACC Creation The Vault, ACT Studio
02 Mar, 2018 – 25 Mar, 2018

Hours
Tue – Sun : 10AM – 6PM
Wed, Sat : 10AM – 7PM
Closed on Mondays

Admissions
Tickets for All Exhibition :
3,000 – 5,000KRW
* 50% discount for student
* 20% discount for groups for 10 or more



주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주관
아시아문화원

Organized by
Asia Culture Center
Produced by
Asia Culture Institute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전당로 38

Asia Culture Center
38 Munhwajeondang-ro, Dong-gu,
Gwangju 61485, Republic of Korea



Otherly

Spaced

Now

Know

ledge

감각과 지식 사이

2018. 03. 02 – 03. 25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문화창조원 볼트, 창제작 스튜디오
Asia Culture Center ACC Creation Vault, ACT Studio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전당로 38

Asia Culture Center
38 Munhwajeondang-ro, Dong-gu,
Gwangju 61485, Republic of Korea

T. 1899-5566
www.acc.gg.kr

<div><div></div>감각과 지식 사이</div>	<div><div></div>Otherly Space/Knowledge</div>	<div><div></div>전시 연계 프로그램</div>	<div><div></div>Exhibition Related Events</div>
<div> <div><감각과 지식 사이 OTHERLY SPACE/KNOWLEDGE></div> <div> <p>기획에 앞서 혁신기술과 사회변화 사이, 우리의 현주소 정리가 필연적임을 실감했습니다. 기존에 접근할 수 없었던 개인 및 공공 공간은 미디어 기술의 발전에 의해 충분히 접근 가능한 영역이 되었습니다. 또한 어느때보다 우린 현실인식을 위해 숫자와 텍스트, 이미지를 통해 구성된 메타-현실에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일상 속에서 우리의 의식은 기존의 현실세계보다 메타현실에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하는 생활습관과 직업을 갖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미디어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획일화된 메타현실이 아닌 다층적, 다방면 해석이 가능해졌으며 이는 분별력 없이는 사회-기술의 관계는 물론, 단순한 소통조차 모호하게 만들었습니다. 사회변화와 기술발전의 관계는 과연 예측가능한 우호적인 관계, 혹은 불분명한 어느 지평선으로 치닫게 하는 관계일까요?</p> <p>정확한 시기는 짐을 수 없지만 근25년 컴퓨터 기술의 도약 과정 중에 인간과 컴퓨터 간의 관계는 새롭게 정의된 듯 합니다. 인간의 데이터 처리 능력을 지원하기 위해 진화했던 컴퓨터는 어느 날부터인가 인간이 따라갈 수 없는 수준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처리된 데이터를 소비하는 행위까지 컴퓨터의 영역이 되어 데이터베이스와 인공지능을 통해 습득하고 재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컴퓨터가 생산하고 소비까지 한 데이터와 정보는 이제 현실의 경계선, 물질세계의 지경까지 넘보고 있습니다. 현실사회 또한 항상 기술의 눈부신 진보와 나란히 변화를 거듭하였지만, 현시점에서의 발전은 여태껏 보아온 방향 없는 수단이 아닌 절대적인 어느 곳을 향한 것이 아닐까 하는 고민을 품게 합니다.</p> <p>기술은 다양한 삶의 방식을 확일화하고 사회적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미디어를 통합하는 동시에 이를 근간으로 발생하는 교류 또한 촉진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예술과 예술의 생산은 어떠한 영향을 받을까요? 그리고 또 어떠한 대응이 변화에 가장 적합할까요? 기술과 예술은 각각 지향하는 바가 다릅니다. 기술은 사회적 규범에 동조하며 사회적 효용성을 얻고자 하는 반면, 예술은 그러한 규범과 양식을 벗어난 오묘하고 낯선 것들을 시각적인 언어로 포착하고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 때문에 예술은 지금 주어진 정보를 초월하는 미래의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고, 정보화 사회에서도 여전히 가치있고 유효한 비중을 차지합니다.</p> <p>AI나 VR과 같은 혁신적인 기술이 처음 소개되었을 때, 기술의 첨단성이 가장 주목받았습니다. 기괴하게 느낄 만큼이나 혁신적인 기술이었기 때문에, 이를 둘러싼 논의는 접목과 가능성보다는 첨단성의 소개에 그치지 일수였습니다. 잊혀질만하면 시장에 새로운 모습으로 재삼재사 소개된 시와 VR은 발전을 거듭하여 오직 소수만이 예측 가능했던 영역으로까지 진보했습니다. 미디어아트는 예술가의 표현의 혁신성으로서 테크놀로지를 이용하여 컴퓨팅의 프로세스를 어느정도 낙천적으로 시각화 하는 단계를 끝내고 정보 사회의 본질적 의미와 의의에 대해 접근하는 개념을 중심으로 진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p> </div></div>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문화창조원 볼트, 창제작 스튜디오
2018. 03. 02 – 03. 25

Asia Culture Center
ACC Creation Vault, ACT Studio
02 Mar, 2018 – 25 Mar, 2018

감각과 지식 사이

Otherly Space/Knowledge

전시 연계 프로그램

Exhibition Related Events